



왜 책을 읽느냐고 묻는다면

왜 책을 읽느냐는 질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5월 개최된 2009 서울국제도서전의 ‘한·일 독서진흥 현황과 출판문화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별 대담 행사 자리에서였다. 대담에 참여했던 이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독서운동 단체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의 도정일 대표(경희대 명예교수)와 일본의 범사회적 독서운동 단체인 ‘문자·활자 문화 추진기구’의 히다 미요코 이사장(동화작가, 전국회의원)이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동갑내기(1941년생) 노장 독서운동가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고 독서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사회자로서 질문을 던졌던 필자는 깜짝 놀랐다. 단순하면서도 함의가 풍부한 답변이 이구동성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날 대담의 결론 중 하나는 디지털 시대에도 책과 독서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독서를 통해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변화된 책읽기 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등 책읽기와 관련된 여러 통계지표가 하락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 만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영국이 2008년에, 일본이 2010년을 ‘독서의 해’로 정한 것도 그 반증이다.

특히 각종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서환경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요즘 전철을 타면 휴대전화나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등 다양한 휴대 단말기로 텔레비전, 영화, 게임에 몰입해 있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전철에서 책을 읽었을 법한 또래 젊은이들의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독서문화가 위기라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인터넷서점의 발달, 본문검색 서비스, 주문형 인쇄출판(POD) 등에 의해 종이책은 재발견되고 판로를 확장하며 새로운 활로를 만들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이 내놓아 히트시킨 전자책 단말기 ‘킨들’이나 일본의 휴대전화 소설 붐으로 대표되는 전자책 문화, 그리고 인터넷의 독서 동호회와 종교책 거래 장터, 블로그 서평 등 디지털 문명 속에서 새롭게 생성된 독서문화는 책, 독서정보, 독자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 순기능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과거와 다른 형태의 독서문화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독서습관의 사회적 유전

누구나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열렬한 독서가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독서에

있으며, 사고력과 창의력의 바탕이 책읽기에서 비롯됨을 많은 이들이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 우리나라 성인(대학생 포함)의 비율은 10명 중 6명 정도에 불과하다.

필자는 지난 10여 년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책읽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은 독서습관의 부족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거나 많이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바빠서’라는 답변도 알고 보면 독서습관 부족을 고백하는 것이다.

독서습관은 대부분 독서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맹모 삼천지교라 했다. 생활환경 안에 책·서점·도서관이 있는지, 주변에 책을 권하거나 책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언론매체에서 책에 대한 정보나 화제를 자주 소개하는지의 여부 모두가 그러한 독서환경을 이룬다.

예를 들어 ‘아침 10분 독서’ 시간이 있거나 도서관 시설이 좋고 사서교사까지 둔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독서경영’을 하는 기업의 직원들은 평균치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는다. 영·유아 대상의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역의 아기들이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책 읽는 아이로 자란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이 감명 깊게 읽는 책으로 소개되면서 일약 베스트셀러에 오른 『생각의 탄생』을 비롯해 사회 명사들이 애독했다는 책이 많이 팔린 사례 또한 부지기수다. 이와 같이 독서와 관련된 시설, 정보와 화제, 프로그램 모두가 독서환경을 구성하고, 이것이 독서습관 형성의 계기를 만든다.

뿐만 아니라 독서습관은 대물림된다. 책을 많이 읽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독서를 권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가 자녀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녀의 독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자녀 교육법은 없다”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부모의 영향으로 독서량이 많은 학생은 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도 높다.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다’는 비율이 성인 10명 중 1명, 학생 10명 중 2명에 불과한 현실은 우리 국민의 독서가 얼마나 질적으로 부실한가를 웅변한다. 사회 전체로 보아도 독서문화는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유전되므로 좋은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독서습관을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책읽는 직장’ 만들기

독서습관의 힘은 대단하다. 하루 30분이면 1년에 웬만한 책 30권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3030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으면 한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거나 일정 시간을 매일 할애하기에 가능하다. 이 때 개인적인 타성을 극복하려면 가정, 직장, 지역 등에서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활 거점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읽고 토론하는 ‘함께하는 독서’로 다른 모임 못지않은 즐거움을 공유할 수도 있다. 최근 발표된 일본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는 공식적인 독서모임만 해도 8,500개에 이른다. 이것이 풀뿌리 독서강국의 힘이 아니고 무엇일까.

<2008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보면 직장인 가운데 도서관(도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7퍼센트에 불과하다. 직장에 도서관이 있을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서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나아가 전체 직원이 아침 업무 시작 전 30분 정도 읽고 싶은 책을

읽도록 배려하는 직장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책 이야기가 직장에 꽃피고 창의적 조직문화가 넘쳐날 것이다.

독서가 개인의 기호나 취미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났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끊임없이 지적 재충전이 필요한 평생학습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독서권’(책읽을 권리)이 생존권적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생활권과 관련된 편리한 시설(이를 테면 직장도서관), 좋은 책, 독서시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바빠도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책을 읽는’ 이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일상의 풍경에서 책 읽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진정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다루는 방법, 독서

『서른살 직장인, 책읽기를 배우다』는 직장인들이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20대부터 40대 직장인들의 생생한 인터뷰로 보여주는 책이다. 평소 책읽기를 멀리했던 이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책을 읽게 되면서 변화된 직장생활, 인간관계, 가족애, 나아가 ‘인생의 여유’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그들은 입을 모은다. 책읽기가 안겨준 효용과 가치에 대한 예찬도 끝이 없다. 독서량이 형편없던 평범한 이들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인터넷 독서클럽까지 운영하게 된 점도 흥미롭다. 마치 간증 사례집처럼 ‘변화된 삶’을 말한다. 정운찬, 이어령, 이지성, 승효상과 같은 독서 고수들이 말하는 독서론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울림이 있다.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직장인들에게 각성을 주는 책이다.

저자가 일간지 기자답게 요령있게 정리한 ‘책읽기를 배우야 하는 15가지 이유’에 사족 하나를 덧붙인다. 독서는 바로 자신을 위한 배려이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점이다. 직장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미 세상은 인맥이나 학맥보다는 창의력 있는 지맥(知脈)형 인재를 원한다. 독서습관을 통해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삶의 여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